



▲유한양행 (1973)



▲녹십자 (1976)



▲동화약품 (1980)



▲일동제약 (1973)



▲광동제약 (1986)



▲창근당 (1968)

창간호



▲동아제약 (1976)

약사공론으로 되돌려본 광고

약사공론 4000호에는 제약회사 의약품 광고의 역사도 흐른다. 제약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시절, 너나 없이 풍족하지 못하던 시절 의약품 광고는 희망이자 종소리였다.

특히 전국 모든 약사 독자들의 책상 위에 자리잡았던 약사공론은 제약회사와 약국, 약사가 만나는 또다른 공간이었다. 의약품 1차 소비자인 약사들은 약사공론 광고를 통해 신제품을 만났고, 약사공론에 실린 광고는 바로 신뢰의 또다른 이름이었다.

광고에는 기초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발전해가는 대한민국 제약업계의 발전 모습이 배어있다. 시대의 트렌드를 가장 먼저 잡아낸다는 광고 문구에는 시대의 빛과 그림자가 드리워있다. 오래된 광고를 보노라면 오래된 친구와 만나는 것처럼 편안하고 약간 흥분된다.



▲한미약품 (1984)



▲대웅제약 (1980)



▲중외제약 (1977)



▲태평양제약 (1984)



▲한독약품 (1973)



▲현대약품 (1977)



▲한국화이자 (1975)

KPANEWS·약사공론 지령4000호 발간을 축하합니다.

CAU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회 장 유정사

사무총장 정찬현
여동문회총무 김영희
감 사 박호일

사무부총장 최면용
감 사 박도규

여동문회장 이경옥
감 사 권태섭
외 동문일동